



사업장 금연정책과 인센티브(5)

양산삼성병원 산업의학과 / 박정래

1. 인센티브와 경제학

인센티브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며 지렛대이자 열쇠이다. 즉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자그마한 어떤 것이다.

인센티브는 현대의 삶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이해하는 것, 혹은 그것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데 좀처럼 시도하지 않을 때 이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형적인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인센티브 방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물론 그 해결책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겠지만 말이다(결과적으로 강요나 과도한 벌금 및 불이익,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 적어도 처음 제기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경제학자나 정치가 혹은 회사의 경영자나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든다.

많은 국민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상황이 붕괴될 위협에 번번이 처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옹호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탁월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월급에서 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특색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

센티브다. 그리고 하나의 인센티브 방식은 대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금연정책의 예를 들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이다. 병원, 지하철, 호텔, 영화관, 항공기, 음식점 등의 공공장소나 작업장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인센티브이다.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임신부와 영·유아 등 비흡연자들의 건강피해를 강조하거나 국제적인 범죄 집단이 담배 밀수를 통해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종의 도덕적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이제까지 인류가 발명한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위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범죄행위로 인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가능성(그 결과, 직장과 집을 잃고 자유를 잃는 등의 상실도 경제적 불이익이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센티브이다. 사람들은 또한 도덕적 인센티브(나쁜 짓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와 사회적 인센티브(나쁜 짓을 한 사실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에도 반응하게 된다. 특히 특정형태의 부정행위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사회적 인센티브가 작용하기도 한다.

중세시대 간통의 표지로 주홍글씨를 달았듯이, 현재에도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공격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 생각

해 보라. 10만원의 벌금과 자신의 범죄행위가 '개똥녀', '패륜녀', '된장녀' 등의 표현을 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친구나 가족들이 발견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

2. 인센티브의 부정적 측면

1970년대에 몇 명의 연구진이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놀이방 실험과 비슷한, 도덕적 인센티브를 경제적 인센티브로 대체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연구 목적은 현열에 숨겨진 동기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이 현열이라는 이타적인 행위에 대해 칭찬을 받을 때보다 적은 액수의 현금을 받을 때 오히려 현열을 덜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박애정신에서 우러나온 고귀한 행동이 금전적 대가의 도입으로 인해 순간적인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몇 달러를 버는 천한 행위로 돌변한 것이다. 그 몇 달러는 자신의 피까지 뽑아가며 벌어야 할 가치가 없는 돈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작용은 꼭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에 현열을 했을 때 50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현열자의 수는 놀랍도록 늘어났을 것

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부분도 바뀌었을 것이다. 모든 인센티브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허용치 이상의 현찰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인센티브가 무엇이고 상황이 어떠한든,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챙기려 드는 법이다.

2-1. 인센티브 제공이 잘못된 것인가?

인센티브가 근로자들의 건강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 영역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견은 “흡연, 음주, 비만률을 줄일 수 있는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는 한편으로 “뇌물의 한 수단”, “건강습관이 나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이란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미국심장병협회(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암협회(The American Cancer Society), 미국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등은 질병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대해 할증료 부과, 공제액 부담 경감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 적용방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협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근로자 개인의 건강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실행계획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불이익)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협회는 인센티브 방식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보장프로그램이 흡연자, 과체중자, 운동부족자, 고혈압 환자 등에게 보다 높은 보험료 할증액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보다 많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근로자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건강증진 효과를 얻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성질환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들의 치료적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도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규칙적인 운동 등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일과 전, 일과 중, 일과 후의 여가시

인센티브 지급 방식 프로그램이 금연 진료의 보험보장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

미국 아이다호에서의 인센티브 방식의 금연프로그램이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아이다호 주에서는 빈곤계층의 건강 증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금연이나 체중 감량을 희망하는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100달러에 준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들이 의사를 방문하여 금연진료나 비만진료를 받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달러에 준하는 상품권을 재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200달러에 준하는 상품권으로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의 금연 보조제를 구입할 수 있었다. 참가자의 금연성공이 의사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100달러의 현금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중증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유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흡연량이 많고 흡연기간이 오랜 중증 흡연자들의 경우, 금연시도 과정에서 높은 흡연 재발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200달러의 금액으로는 총 8주간의 금연보조제만 구입할 수 있었다. 미국의 공식적인 금연진료 권고안에서는 8-12주 이상의 금연치료 기간이 권고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의 금연치료가 권고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중증 흡연자들에게 충분한 금연치료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전문가들은 12주의 금연치료 기간을 건강보험에 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간 부족과 직장이나 주거지 인근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장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회사와 작업장 내에서도 금연프로그램과 식습관 개선프로그램에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고, 일과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금전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협회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장

은 실제로 소수의 대기업에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앞선 5월호에 소개한 미국 GE사의 백인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자 1인당 750달러의 금전적 혜택이 제공된 바 있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케빈 볼프 교수는 근로자들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운용한 연구 경험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의 소득수준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편인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전적 혜택 제공이 요구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에 존재하는 건강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중증 흡연자의 경우, 금연시도 과정에서 잦은 흡연 재발을 보이게 되어 원금을 포기해야 하는 금연 펀드 방식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리적 저항감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장 흡연문제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잘못된 적용 방식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우에도 흡연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날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밝혀둔다.

2-2.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도덕적 측면의 우려사항들

1. 뇌물적 성격(Bribery)을 가진다.
 -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행위를

- 를 취하도록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 2. 강제적인 성격(Coercion)을 가진다.
 -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을 제공하여 의도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 3. 참견적, 개입적 성격(Paternalistic)을 가진다.
 - 사람들의 자율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 4. 공정성이 결여(Unfair) 되어 있다.
 - 사람들이 어쩔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 5. 금전적 낭비(Waste of Money)를 초래한다.
 - 도처에 자금운용의 필요가 산재한 상태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비용을 가치없는 영역에 사용하는 것이다.

인센티브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그 영향의 효과가 균등하지 않게 나타나면서 건강불평등 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금연에 대한 내적인 동기부여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128개의 실험적 연구들의 메타 분석 결과는 외부적인 보상효과가 중단될

경우에는 해당 과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적동기가 손상되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그에 대한 반론들

1. 뇌물이 아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성과를 이루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3.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 일상적인 선택 과정에서 건강습관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수 있게끔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4. 공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행위를 개선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성을 촉진시킨다.
5. 비용효과적인 장점을 가진다.
 - 적절한 수준의 보건비용을 투자하여 막대한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금전적인 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금연과 관련한 건강증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법령이나 회사의 규정에 의한 흡연의 금지조치보다는 그 구속력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가자 스스로의 선택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고무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센티브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성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 제공 방식은 일반 인구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 전문가그룹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이 일부 보건영역에서라도 그 효과를 나타내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적 가치의 가능성은 계속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인센티브의 새로운 대안 - 넋지효과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인 행동경제

학(behavioral economics)은 고전경제학(주류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상 즉,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선택을 하는 이상화된 인간상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즉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흡연, 비만 등의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이 주어진 건강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해왔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흡연문제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담배가격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행위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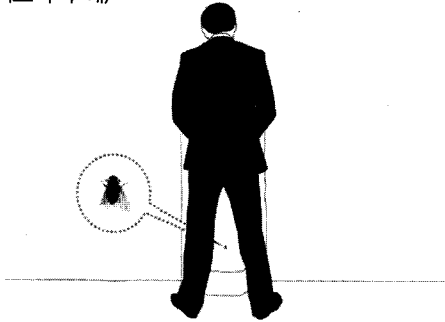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서 지난 수 세기 동안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이뤄져 왔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편견과 함정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각 개인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을 선택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경제주체인 개인이 합리적이기는 커녕 엉뚱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선택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주목한다. 건

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도넛의 유혹에 이끌려서 고열량의 음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전을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이 바로 '넛지'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비난하는 데 머물기 보다는 대다수의 인간이 체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을 '넛지'를 통해 미리 제거해 놓으면 보다 바람직한 선택과 행동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되 행동 특성을 반영한 넛지(Nudge)를 가해서 경제적, 사회적, 건강증진 측면에서 이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사업장 금연정책을 법규로 강제하거나 혹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식 등의 '규제적 개입주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 정부보건당국이나 기업이 근로자들의 행동 방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나타낸다. 사회 전반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뱃값을 인상하거나 흡연자의 고용 및 승진기회를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흡연자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일련의 의식적

〈넛지효과 의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이곳은 '화장실을 청결하게' 같은 훈계조 캠페인은 붙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단번에 80%나 줄이는 '왜거'를 이뤘다. 특이점은 딱 하나. 남성들이 볼일 보는 소변기마다 중앙 부분에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별 생각 없이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온 남성들이 시쳇말로 파리 한 마리에 '눅였다'. 소변기의 파리 그림

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조준, '집중 발사'를 하는 바람에 소변이 밖으로 튀질 않아 화장실이 청결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는 뜻의 '넛지(nudge)' 로 통용되는 행동경제학 용어는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거나 혹은 기분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이익이 되도록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을 의미한다.

위에 소개한 사례는 정책결정자(선택설계자)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적 넛지' 를 통해 부드러운 개입효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 노력들이 바로 '개입주의' 인 것이다.

반면에 행동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비교적 유연하며 비(非)강제적인 유형의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선택을 가로막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자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는 법

규나 벌칙을 통해 이를 못하게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이도록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을 설계하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방식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 라고 한다.

금연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관리자는 결국 근로자들의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환경을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선택설계자' 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경우 기업의 금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 설계자' 의 역할이 중요

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흡연 행위와 같은 특정한 선택을 금지하거나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 등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쏟아부리지 않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인 만큼 지나친 간섭, 인권침해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그렇게 하는 데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4. 건강증진분야의 넛지 효과

행동경제학자들이 공중보건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권고하는 것이 ‘불균형적인 개입주의(asymmetric paternalism)’이다. 이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개입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법률적 규제방식이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과는 달리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서 차이를 가진다. 또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각 개인들을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사려 깊은 선택을 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asymmetric)이다.

불균형적인 간섭주의는 법률적 강제, 벌칙 등의 부정적 인센티브 등과 같은 규제위주의 엄격한 개입방식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개인의 행동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서 각 개인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예로써 식사진열대에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을 우선적으로 눈에 띄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몸에 나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음식의 섭취량을 높일 수가 있다. 학교급식 때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나 과일을 눈에 잘 띄고 손이 잘 가는 곳에 놓고 고열량의 음식을 손이 가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것도 좋은 사례다. 균형적인 음식섭취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자리 앞에 야채나 과일 등을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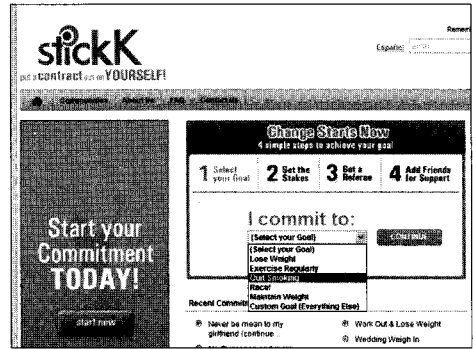
슈퍼나 편의점의 진열대에서 담배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소매점 진열대에 담배 전시를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을 줄여주고 금연 시도자들의 흡연재발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장내부 혹은 부근에서의 담배 구입을 어렵게 하거나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흡연량을 줄이는 선택설계의 영역에 포함된다.

넛지효과는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슈퍼마켓 진열대에 특정식품을 재배열하는 것만으로도 판매가 25% 늘어나고 휴대폰을 6개월 이내에 구매

스틱닷컴(www.stickk.com)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성공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 행위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스틱닷컴(www.stickk.com)은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웹기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스틱닷컴은 두 가지 방법의 약속, 즉 금전적인 방법과 비금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금전적인 방법은 돈을 내고 체중감량, 금연(Quit Smoking), 운동횟수 늘리기, 성적향상 등의 특정목표를 특정날짜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스틱닷컴 홈페이지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목표를 달성했음을 입증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서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거나 소변검사를 통해 니코틴 배출량을 확인하거나 기타의 양심적인 입증방법을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그 돈이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혹은 금전적인 약속집단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성원들이 모은 돈을 목표를 달성한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다. 그보다 더 짓궂지만 어쩌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옵션은 그 돈을 참가자가 싫어하는 단체, 이를테면 자신이 싫어하는 반대정당이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 팬클럽의 최대라이벌 팬클럽에게 주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라면 목표달성 실패 시 자신이 적립한 금액이 한나라당의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되게 정하거나 또는 프로야구 두산 팀의 열성팬이라면 라이벌 연고팀인 LG 팀 팬클럽의 운영기금으로 기부되게 정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운영하는 금연펀드의 경우, 자신의 금연시도 상황과 성공여부가 주변에 공개되는 부담이 크고 금연에 실패할 경우 '패배자(loser)'로 낙인찍힐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를 기피하는 흡연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상과 같이 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금연성공을 공식화시키는 방안을 추천할 수 있다.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만으로도 구매율을 35%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의사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흡연여부를 확인하고 금연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금연시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 대신에 나쁜 건강습관을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오류와 편견을 활용하여 불균형적인 간섭방식을 취하

는 시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 즉 기본값)이나 현상 유지적 기본선택이 종종 건강에 해로운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패스트 푸드 식당의 경우, 세트 메뉴의 구성에 탄산음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슈퍼사이즈의 패밀리 세트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에 탄산음료도 보다 큰 용량으로 제공되거나 무한리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때 세트메뉴의 기본 구성을 탄산음료 대신에 물로 대신하고 탄산음료는 별도로 주문하게 만드는 것으로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객들이 탄산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음료 소비행태에는 상당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료과정에서는 환자의 흡연력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무기록의 디폴트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혹은 ‘불균형적 개입주의(asymmetric paternalism)’로도 불리는 건강증진분야의 넛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적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도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강력한 금연정책과 금전적 인센티브 적용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